[지원분야에 대한 본인의 역량]

* 동아리 회장한 얘기 새터민 집단하고 연계해서 애들 소개시켜줬어 중학교랑 연계했어

봉사활동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연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동아리 회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동아리에는 크게 두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창립제, 개강 총회, 종강 총회와 같은 행사들과, 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내부 행사의 경우, 마음이 잘 맞는 임원진들과 회의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이미 수 년 동안 해온 아웃라인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그때 그때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것 만으로는 봉사활동 동아리로서의 방향성도 약하고,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찾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 기관 등과 연계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나 기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새터민 관련 단체와 연결이 닿아, 새터민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도 하고 해당 기관의 행사 진행에 도움도 드리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OO 중학교에서 1달에 한번 정도 CA시간에 해당학교의 봉사활동 부에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원들이 돌아가면서 학교에 방문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가치와 동아리의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흥미도 갖게 하고 학생 개개인이 갖고있는 호기심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소재지의 중학교였기 때문에 잠재적인 동아리 부원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아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여야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을 잘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매달 행사나 친목 활동은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새터민에 관련된 봉사활동과 중학교 멘토링을 통해 동아리 회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봉사활동 동아리로서의 방향성도 살리며 이를 통해 부원모집, 유지에도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피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프로그래밍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전혀 관련 없이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더 나아가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여 해당 교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몇시간일까용)시간의 교육 이수 시간 동안 python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어쩌구저쩌구 등등을)을 교육하였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영화 추천 사이트를 만들어 배포해 보는 팀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교육기관에서 작은 수상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소규모 프로젝트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마냥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사실은 작은 실마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기계적으로, 우선 해보고 안되면 다시하지 뭐… 라는 식의 접근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체계적인 구상을 모두 마친 뒤에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관에서도 구상과, 구체화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한 장면만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가며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동안 해야할 일과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 그 자체를 배우고,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지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몰랐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과 낯설고 새로운 분야를 향한 도전에 대해 자신감도 생기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 중요성]

시작한 일과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첫째로, 봉사활동 동아리 회장에 부임했을 당시, 좋지 않은 동아리의 상황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오버스팩 시대의 대학생에게 동아리는 시간 낭비로 치부되고,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의 일원으로 지내온 시간들은 대학생활 어떤 시간보다 값지게 느껴지고, 또 다른 어떤 스펙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아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아리 활동의 매력과 진짜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는 사람을 모집 해야하고, 사람이 찾아줘야 하는 집단이기에 동아리의 장점,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매력을 어필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새터민 단체와의 연계, 중학교 멘토링과 같은 눈에, 귀에 들어오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한 발로 뛰며 회원들을 유치하여 신입생 유치, 유지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규칙과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모 기업이 운영하여 무상교육, 교육지원금과 같은 특혜도 많았지만, 그만큼 규정이 타이트한 편이었습니다. 자칫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규제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미 교육과정에 소속된 일원이 되었고, 또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기에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경아…도저히 쓸말이없는데 내일 도와줄거지….?? 믿을게…ㅠ

* 책임의식 동아리 망해갔는데 지켜냈다! / 동아리 똥망 => 봉사타이틀 권선 / (50년 70살 70~60 60~50 소통)

직업윤리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이다.

　　ー 근로윤리 : 업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 (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

- 공동체윤리 :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예절 )

\* 직업윤리 – 책임의식

[문제해결 사례나 경험]

* 필드 가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가치가 있는 광물, 이런걸 팔아먹는 얘길 보통 쓰는데 우리는 시선을 바꿔서 테마파크를 구성해보자 하는 식으로 했다.
* 나는 항상 중재자 역할 가운데 서서 이 사건 (내일로)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Sw 분야를 알게 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핵심을 잘 짚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